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8.9~2017.8.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은 소유를 분자로, 욕망을 분모로 한다

당신이 행복입니다

월호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행복 포교사 월호 스님이 신간을 펴냈다. 책 제목 역시 〈당신이 행복입니다〉이다. 책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행복학으로서의 불교를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불법을 설하셨다. '행불!', 즉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해지는 '행복한 불교'이다. 월호 스님〈사진〉은 대중에게 "행불 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행불 하세요" 하고 다녔다고 한다. 사실상 이 인사법은 불지견(佛知見=부처님 무상(無上) 지혜)을 열어주려는 노력에서다. 불지견을 가지면 본래 부처기 때문이다. "성불 하세요"는 아직 중생이란 말이니 중생지견의 인사법이다. 이것은 소승불교의 인사법이지 대승불교의 인사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서장〉에서는 중생지견을 갖는 한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중생이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중생지견을 가지면 평생 중생이고, 불지견을 갖고 있어야 신도 될 수 있고 신의 스승인 부처도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책은 월호 스님이 행불선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행복한 불교' 내용을 정리 보완한 책으로, 행복 창조 법문 10장과 4개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불자와 마주앉아 들려주는 스님 특유의 재치와 웃음 넘치는 명쾌한 법문 내용을 생생하게 옮겨 놓아, 책읽는 내내 그 자리에 동참한 듯 친근감이 들게 한다. 월호 스님은 대중들이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하는 전법도량 행불선원을 운영중이며, 불교TV와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찰력 있는 명강의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호 스님 서원이 담긴 '행복한 불교'

이 책은 주로 〈법구경〉 게송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 한다. 월호 스님은 이 책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전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보시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법보시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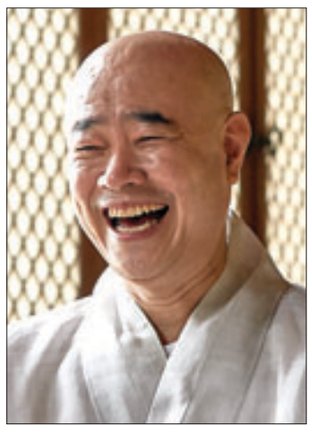
"갈색 가사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중생들에게 사구게송 하나 설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그만큼 게송 공덕이 크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처님 당시 숲속에 사는 에꾸다나 비구의 이야기처럼, 게송을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실행하면 신도 감동한다는 것을 알고, 게송 공덕을 쌓을 것을 권한다. 또한 게송과 친해지는 한 방법으로, 게송과 어울리는 음악, 예를 들어 엘가의 '사랑의 인사'나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 캔사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등의 음악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며 게송을 한 번 더 읊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좋은 음악과 어우러져 게송을 낭송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생기는 법이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라고 조언한다.

월호 스님은 '게송과 음악 친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시도를 한다. 부처님 가르침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노래와 율동으로 만든 것도 그 한 예이다. 팔정도의 노래와 율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 책에 나오는 '행불의 노래'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불의 노래'는 월호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간결히 응축해 지은 것으로, 지난 수년간 스님이 설한 '행복한 불교'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모두 들어 있다. '행불의 노래'야말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길잡이가 돼 주려는 월호 스님의 서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게송과 관련해 부처님 당시 일화들이 풍부하게 나온다. 빤디따 사미의 깨달음, 법을 얻기 위해 홀로 열심히 정진한 띳사 비구, 게송을 독송해 수명이 늘어난 소년 디가유,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다닌 마하깝뻰나 장로 등 게송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게송을 보다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루할 틈 없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대면 관찰하면 욕심 줄고 행복 늘어

무아법에 분모 '0' 되면 행복 '무한'

월호 스님의 10가지
'행복창조 비결'

1.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2. 내가 인(因)이요, 남이 연(緣)이다.
3.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4.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자.
5. 나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다.
6. 걸림돌이 디딤돌!
   스트레스가 꽃피운다.
7. 모든 것은 한때다.
   걱정할 시간에 관찰하자.
8. 리셋! 크고 밝고 둥글게.
9.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비교하자.
10. 수행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전이다.

인생 가치 있게 사는 법, '관찰과 보시'

행복은 소유를 분자로 하고, 욕망을 분모로 한다. 소유를 늘리려면 복을 닦아야 하고, 복 닦기의 첫째가 보시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동차, 더 넓고 비싼 집은 일시적 기쁨을 안겨 줄 뿐, 궁극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욕망을 줄이려면 도를 닦아야 하고, 도 닦기의 첫째가 대면 관찰이라고 한다. 대면 관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욕심과 분노가 줄어들고 희열과 행복이 늘어난다. 결국 무아법에 통달해 분모가 '0'이 되면 행복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불교'의 구체적인 덕목이 바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라는 것이다. 그러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관찰과 보시'야말로 최상의 수행법으로써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임을 강조한다.

스님은 묻는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동안 스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행복창조 비결 10가지'를 권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도 닦기와 복 닦기' '자애경 법문' '게송으로 본 붓다의 전생담' '수계식 의식문' 등 4개의 특강이 실려 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평안히 죽음을 맞으려면 복 닦기와 도 닦기를 해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주신 무기인 자애경 법문, 디빵까라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청년 수메다 이야기,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불교에 입문하는 수계식 등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길로 안내해 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리산 쌍계사로 입산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쌍계사, 봉암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서 정진했다.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쌍계총림 방장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현재 서울과 이천의 행불선원 선원장으로서 전법에 진력중이며, BBS불교방송 라디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한다. 아울러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실천행에 전념중이다.

파워블로그속 6천여개 글, '진짜 사주학' 책에 모았다

고서를 버려라

정재권 지음 | 바람의 독수리 펴냄 | 3만 4천원



내 운명은 미리 정해진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사주와 운명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놀이공원 등서 한번쯤 자신의 사주풀이를 경험에 본 사람들이 쏠쏠치 않게 많은 이유다. 하지만 사주를 풀이하는 방식은 사주풀이를 하는 역술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대와 고서를 뛰어 넘어서 사주학을 현대적으로 풀이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여기서 현대사주학은 새로운 사주학이라는 말이다. 주인공은 바람의 독수리, 저자 정재권이다. 그와 같은 관점서 사주를 풀이한 이들은 흔치 않다. 마스터가 전하는 통찰의 사주학, 인생의 길흉화복을 해석하고 사주명리학을 재조명한 이 책은 바독의 블로그 〈사주 운명 그리고 禪으로의 초대〉에 있는 6천여개의 글들을 편집해 펴냈다. 책은 그 정수만을 모은 것으로 434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저자의 바독 블로그는 하루 방문 1만명, 지금까지 조회 수만 1600만회를 넘은 파워 블로그중 하나다.

저자 정재권은 히말라야와 인도, 오쇼 센터 등서 다양한 수행과 명상을 하던 중 자연스런 존재의 흐름을 따라 스리랑카로 건너 갔고, 1995년 12월 스리랑카 산중 사원서 4개의 샘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좇았다. 2010년부터는 바람의 독수리란 필명으로 일상서 활동하며 매주 사주강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명상캠프를 열고 4개의 샘 정화, 지식 호흡, 걸음걸이 명상 등 다양한 수행법까지 함께 전파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사주학은 고서들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제대로 바로잡을 부분들이 많은 것은 물론, 쌍둥이 사주 해석 등 그동안 사주학으로는 안풀리던 부분들을 새로 개척 중이다. 그것은 내가 사주 보는 사람이기 전에 깨달음을 경험한 마스터로서 통찰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주는 운명을 보는 학문인 만큼 그릇된 판단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엇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 책과 내 블로그의 수천 개 글들을 모든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주의 대중화와 제대로 된 사주학을 알고 공부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책 발간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저자 정재권은 사주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수년간 사주와 씨름하듯 연구하고 공부했다. 시중에 출간된 관련 도서는 모조리 섭렵했을 정도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사주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예전과 지금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자는 남편만 보고 살아야 해서, 관(官)이 하나만 있는 즉 일부종사하는 것을 좋은 사주로 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신강한 사주를 아주 좋게 봤지만, 현대 사주는 신강해 비견 겁재가 많으면 고집이 세고 독불장군이 돼서 약점으로 작용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좀 신약한 사주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저자는 책에서 설명한다.

사주명리학 현대에 맞게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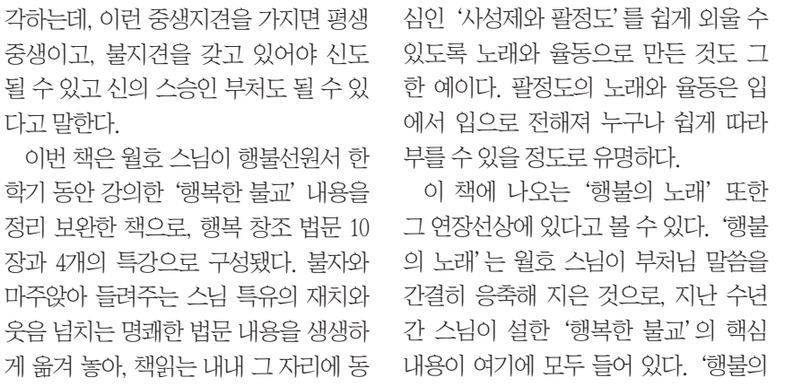
명상 캠프, 걸음 명상 등도 전파

저자 정재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풀어쓴 이야기들을 책 속에 담았다. 그리고 그가 수만 명의 내담자와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도 책에 수록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사주와 삶, 운명의 포지션인 '꼴과 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분명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의 블로그는 가수 장윤정과 아이유 등 많은 유명인들의 사주풀이 '성지순례' 명소로 통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옛 유명인들 사주 풀이로 역사 인물들을 재현하는 코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저자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imi4〉

김주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봉 옥천사 1,000일 행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H·P 010-5960-2085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